

발 간 사

인류의 사회문화적 발전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은 오늘날 많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현대화, 산업화, 세계화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이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문화산업의 발전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무형문화유산의 남용과 전승자의 권익 침해의 문제가 우려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네스코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유 재산으로 인식되어온 무형문화유산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데 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국제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의 무분별한 상업적 남용으로 인해 그 가치가 훼손되고 공동체의 권익 침해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해안점을 찾기 위해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지난 10월, 무형문화유산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동 회의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되었으며 건설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는데,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들을 책자에 담았습니다.

특히 회의에서 다루어졌던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동향,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법적 개념 간의 차이, 공동체 권리 부여 문제,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관련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같은 폭넓은 현안에 대해 향후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로써 창립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센터가 이 책을 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본 회의에서 개회사를 맡아주신 최태용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획이사님, 1부 좌장을 맡아주신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님, 또한 협력기관인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철남 교수님과 육소영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참가자들과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태무형유산센터 소장
박성용